

탈근대의 서사와 텍스트의 이중성

- 황순원의 장편소설 『日月』론

노승욱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1. 머리말
2. 대서사에 가려진 소서사 드러내기
3. 이중 텍스트의 표상으로서의 ‘日月’
4. 이항대립적 가치의 경계선 허물기
5. 맺음말

1. 머리말

초월주의, 정적주의, 진공관의 논리 등으로 비판을 받아오던(조남현 1993:51) 황순원이 비로소 역사 가운데 처해진 문제적인 개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는 6·25 한국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카인의 後裔』(1954), 『人間接木』(1957), 『나무들 비탈에 서다』(1960) 등은 이러한 시대조건으로부터 말미암은 장편들이다.¹⁾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인간성을 주제화한 일련의 장편에 이어 황순원이 새로운 소재를 취해 창작한 장편이 바로 『日月』²⁾이다.

『日月』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천민층으로 인식되어오던 백정에 대해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다. 『日月』이 쓰여진 1960년대 초반은 한국사회가 급격한 정치적 변화와 함께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겪고 있던 시기였다.³⁾ 급격한 사회 변화는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의 가치질서의 변화 또한 야기하게 한다. 『日月』은 당시 한국사회의 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을 등장인물의 내밀한 내면의식과 세대 간의 갈등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다.

『日月』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소외와 외로움, 존재론적 고독 등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⁴⁾ 그렇지만 작가 황순원이

1) 송상일은 황순원이 장편을 시도하도록 만든 중요한 전도체를 6·25 한국전쟁으로 보고 있다. 그는 황순원이 ‘역사 가운데 처해진 문제적 개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과 작가가 처했던 시대적 조건으로서의 6·25 한국전쟁이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송상일 1981:396).

2) 황순원의 다섯 번째 장편소설 『日月』은 『現代文學』 1962년 1월호에 제I부가 발표되었고 5회 연재 후 제II부는 그해 10월호부터 이듬해 4월호까지 연재되었다. 제III부는 1년여의 간격을 두고 1964년 8월호부터 11월호에 연재되었다. 3년여의 기간에 걸쳐 탈고된 『日月』은 때마침 준비 중이던 첫 번째 『黃順元全集』에 포함되어 그해 12월에 창우사에서 간행되었다.

3) 1960년대 초반은 전후 현대한국사회의 변화의 출발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960년의 4·19는 사회변혁운동의 출발점이었으며 이듬해에 일어난 5·16은 군부정권의 30년 집권의 출발점이 되었다(박대순·김동춘 1991:296).

4) 황순원의 『日月』에 대한 연구는 등장인물의 실존적 측면을 부각시킨 경우와 작품의 상징적인 구조를 분석하

『日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주제를 단지 전통적인 가치관과 새로운 산업사회의 가치관의 충돌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이로 인한 개인의 소외와 고독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이 작품을 표면적 서사로만 분석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日月』의 서사를 이중적 텍스트의 관점에서 분석해 나가하고자 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日月’이라는 은유적 표제로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쉽게 지나치고 있는 이 작품의 표제인 ‘日月’은 이 작품이 이중적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 표지이다. 이 작품의 중심 서사는 주인공 인철을 중심으로 한 백정 집안의 가족사이다. 그렇지만 백정 집안의 가족사는 단지 표면적 서사 층위에 불과하다. 이 작품이 실제로 의도하고 있는 서사적 전략은 사회계층의 최하급에 존재하는 백정의 이야기⁵⁾를 소설의 전면으로 부상시킴으로써 한국사회의 중심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대립시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日月』은 탈근대의 서사로 규정할 수 있다. 탈근대의 서사는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정당화된 가치 체계에 인식론적 전복을 포함과 동시에 ‘대서사(grand narrative)’에 억압되어 있던 ‘소서사(little narrative)’를 드러낸다.⁶⁾ 대서사는 타자를 허위와 이단으로 배제해온 절대적 진리와 상통하는 개념으로 온갖 작은 소서사들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억압하고 감추는 권력을 행사한다. 대서사는 근대의 역사적 전개과정 가운데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면서 주변부로 밀려난 소서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탈근대의 사상은 이러한 근대의 대서사에 가려지고 억눌려진 소서사들에 주목하고 그 서사성을 복원함으로써 근대가 나타내는 부정적 효과들을 차단하려고 한다.⁷⁾

이 작품에서 중심 서사로 다루고 있는 백정 집안의 이야기는 한국사회의 주변부의 서사로서 대서사에 가려진 소서사에 해당한다. 이 작품의 표제가 암시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백정 집안의 서사는 ‘달(月)의 서사’이다. ‘달(月)의 서사’는 대서사인 ‘해(日)의 서사’에 의해 억압되어 있는 소서사이다. 반면 ‘해(日)의 서사’는 중심의 서사요, 권력의 서사요, 지배 이데올로기의 서사이다. 따라서 이 작품이 백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해서 이를 단지 계급과

고 있는 경향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성민엽(1983), 「존재론적 고독의 성찰」, 『日月』(黃順元全集 8), 문학과지성사.

김정하(1986), 「황순원 『日月』 연구 : 前像化된 象徴構造의 原型批評의 分析和 解釋」,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허명숙(1988), 「황순원 장편소설 연구 : 『日月』, 『움직이는 城』, 『神들의 주사위』의 人物構造를 中心으로」,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방민화(1988), 「黃順元 『日月』 연구 : 入社式을 中心으로」,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양수(1999. 6), 「黃順元 장편 <日月>의 實存主義文學的 성격」, 『韓國文學論叢』 제24집.

이은영(2002. 4), 「주체의 인식공간과 공간성 연구 : 황순원의 『日月』의 비유적 공간 읽기」, 『한국소설연구』 제4집.

장소진(2003. 6), 「역사적, 사회적 억압과 개인적 실존의 모색 : 황순원의 『일월』론」, 『한민족문화연구』 제12집.

5) 황순원의 소설에서 ‘이야기 지향성’은 근대적 세계와 자본주의의 진부한 일상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반근대적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조현일 2004:35~36).

6) 리오타르 같은 탈근대의 사상가가 지적하는 바에 의하면, 근대의 특성은 어떤 총체적인 대서사(grand narrative)가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반면, 탈근대는 그러한 거대 서사가 호소력을 상실하게 됨과 동시에 소서사(little narrative)가 출현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전경갑 1993:362).

7) 리오타르(1999:13~16)는 ‘모던적인 것(the modern)’과 ‘포스트모던적인 것(the postmodern)’을 구분한다. 모던적인 것은 사회의 중심적 가치를 실현하는 담론으로서의 대서사(grand narrative)와 대서사의 메타 담론으로 형성되는 메타 서사(meta-narrative)이다. 그는 “포스트모던적이라는 것은 메타 서사(대서사)에 대한 불신이다”라고 언급하면서 대서사를 대체할 수 있는 소서사(little narrative)의 역할에 주목한다.

계층의 문제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작품은 거대한 명분을 내세우는 중심부의 권력이 어떻게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을 억누르고 왜곡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표제인 ‘日月’은 이항 대립적 표상 체계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때 이항 대립의 표상에서는 항상 첫째 항이 우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나병철 2001:26). 근대사회의 서사⁸⁾는 항상 첫째 항의 이념적 가치와 우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와 역사는 항상 중심부의 대서사인 ‘해의 역사’에 주목한다. 그러나 작가는 ‘해의 서사’에 가려진 ‘달의 서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천민계층의 상징으로 남아있던 백정의 이야기는 주변부의 소서사인 ‘달의 서사’에 다름 아닌 것이다.

본고는 『日月』을 중심부의 대서사와 주변부의 소서사가 구조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중 텍스트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중심부의 대서사는 주변부의 소서사들을 억누르고 종속시키는 권력을 행사한다. 『日月』이 연재되었던 시기에 한국사회의 대서사는 경제성장과 반공이데올로기였다.⁹⁾ 대서사로서의 정치·경제적 이데올로기는 여타의 소서사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헤게모니로 작용하였다. 대서사의 ‘거대한 대의명분(grand cause)’은 소서사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개인의 삶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담론이었던 것이다. 강력하고 거대한 대서사가 사회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을 때 주변부에 존재하는 소서사로서의 이야기는 감추어지고 억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日月』을 연재하던 시기에 작가 황순원은 경희대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한국사회에서 교수라는 직업은 분명히 중심부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가는 당시 40대 후반의 나이로, 한국사회를 이끌고 있던 장년 세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작가가 3년여의 긴 시간 동안 백정의 이야기, 즉 주변부의 소서사에 몰두한 것은 작가의식을 밝히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가 대서사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가려지고 억눌려진 소서사를 긴 기간 동안 문학잡지에 연재하며 문제삼은 작가의 의도에 주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본고는 작가가 주변부의 이야기, 소서사에 천착한 중요한 이유가 당시 작가 황순원이 남한사회에서 월남 실향민으로서 지니고 있던 신분적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¹⁰⁾ 비록 남한사회에서 교수와 작가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당시 반공이데올로기가 득세하던 남한사회에서 월남 실향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끝없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¹¹⁾ 더욱이 한때 사상전향자들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면서 좌익적 성향의 그늘을 원죄처럼 지니고 있던 황순원에

8) 근대성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보편적 특질들은 자본주의의 발흥과 산업화, 인구학적 변화, 노동 분업, 상업화, 상품화, 도시화, 민주화, 과학적 이성주의, 합리성의 개념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Christopher Pierson 1997:61~62).

9)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정권의 헤게모니를 차지한 군사정권은 군정 초기에 권력 기반을 굳히기 위한 노력을 신속히 전개했다. 군사정권은 혁명 공약 1항에 명시된 반공이데올로기를 정치적 기조로 하여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신속히 추진, 경제성장을 가속화시켜나갔다(김정원, 1984:150~151).

10) 방민호(1994.12:101~102)는 분단과 전쟁의 영향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작가 황순원이 『별과 같이 살다』 이후의 장편에서 상징주의적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허무주의적 인간 탐구로 기우는 경향을 황순원의 월남작가의 정체성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11) 고향을 북에 두고 있는 월남 작가인 황순원에게 있어서 반공이데올로기는 삶과 문학 창작 모두에 억압 기제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주현과 박용규의 논의가 대표적이다(김주현 1997:202, 박용규 2005:175~180).

게 있어서 반공이데올로기의 대서사는 작가적 위기의식을 갖게 하면서 그가 소서사로서의 주변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다.¹²⁾ 작가는 주변부의 소서사인 백정의 이야기로 지배 이데올로기의 대서사의 억압에 비판적으로 저항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日月』을 탈근대적 서사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탈근대적 서사담론은 이항 대립적 가치의 경계를 허무는 데 있다. 이항 대립의 구조는 대서사가 소서사를 억압하는 지배/종속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근대가 나타내고 있는 가치 체계의 전형적인 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항 대립적 가치의 경계 허물기는 타자를 동일화하려고 하는 근대의 대서사에 대한 문학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대의 대서사에 억눌려 있던 소서사들이 해방되고 복원되는 의미도 함께 갖는 것이다. 이항 대립이 무화되는 탈근대적 맥락 속에서는 각각의 소서사들이 서로의 영역에서 존재론적 가치를 지니며 공존할 수 있다. 이는 작가가 백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이 작품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서사에 가려진 소서사 드러내기

『日月』의 텍스트는 대서사에 가려진 소서사를 발현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 작품은 백정 집안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작품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백정의 가족사는 한국 사회에서 주변부의 서사에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작가가 주변부의 서사인 백정의 가족사를 문제 삼은 것은 권력의 서사, 즉 대서사 속에 감추어진 주변부의 소서사를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대서사가 사회 전체의 유토피아를 지향한다면, 소서사는 대서사의 억압과 강제성에서 해방된 사회 구성원들의 유토피아를 지향한다.¹³⁾ 이 작품에서도 근대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과정 속에서 백정 집안의 구성원들이 지향해나가는 각기 다른 유토피아가 제시된다. 그 유토피아는 같은 세대인 본돌영감과 상진영감 형제에게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자녀 세대인 기룡, 인호, 인철, 인주, 인문 등에게서도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소서사 안에서 또 다른 소서사가 미세하게 분열하고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서사에 대해 끊임없이 저항해가는 소서사의 운동적 측면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 작품에서 소서사로서의 백정의 이야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학문적 관심에서 비롯되어 백정의 세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해가는 지교수의 서사가 있다. 분디나뭇골이란 백정 거주지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된 지교수의 서사는 한국 사회에서의 백정의 역사적 유래와 그 문화적 특수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로 백정 세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백정 집안의 자손이라는 혈통의식에서 비롯되어 개인의 내면적 정체성의 문제로 접근해가는 인철 집안의 서사가 있다. 인철을 중심으로 한, 백정 일가의 구성원들이 나타내는 서로 다른 의식과 행동은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자리잡아가는 시대적 변화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각 개인의 내면의식과 행동양식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2) 남로당 산하 문학가동맹의 회원이었던 황순원은 좌익세력 자수전향 기간이었던 1949년 11월에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 전국적으로 4만여 명에 이르던 전향자 중 문인들로는 황순원 외에도 정지용, 김기림, 백철, 정인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김기진 2002:24).

13) 소서사가 강제적인 동일성의 개념과 체계로부터 타자성의 의미소들을 탈출하는 운동으로 전개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나병철 2001:39).

인철 집안의 구성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소서사는 대략 다음 세 가지 층위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본돌영감이 보여주고 있는 전근대적 서사의 층위이다. 두 번째는 상진영감과 인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근대적 서사의 층위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인공 인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탈근대적 서사의 층위이다. 인철의 서사는 이 작품에서 궁극적 주제를 구현해가는 중심 서사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철의 서사는 탈근대적 담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기에 주목에 값한다고 하겠다.

본돌영감이 나타내고 있는 전근대적 서사의 층위는 샤머니즘의 한 형태인 배물교(拜物敎)¹⁴⁾적 숭배를 통해 특징적으로 드러난다. 본돌영감은 소 잡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신앙심과도 같은 믿음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벽에 걸어놓은 소뿔과 소꼬리털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그는 어려서 동생 상진영감과 함께 동네아이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소뿔과 소꼬리털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러다가 본돌영감 자신이 소 잡는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배물교적 신앙의 대상은 칼로 옮겨지게 된다. 그는 소를 위한 제를 지낸 후 뇌졸중으로 쓰러져 왼쪽 신체가 마비되자 영험한 치료에 대한 믿음으로 마비된 왼쪽 팔과 옆구리 사이에 소 잡는 칼을 끼고 잠을 잔다. 이러한 배물교적 신앙 행위는 전근대적 서사의 한 층위를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본돌영감은 보자기를 들치고 칼을 집더니 눈 위에 들고 한동안 바라보는 것이었다. 칼과 무슨 대화라도 하듯이. 칼끝이 잘게 떨었다. 이윽고 본돌영감은 덮고 있는 이불 밑으로 칼을 넣어 왼쪽 팔과 옆구리 사이에 켜다. 이제 잠을 좀 자면 되겠지(황순원 1983:147~148).

본돌영감의 배물교적 경배의 대상인 소 잡는 칼은 작중 중심 화자인 인철에 의해서 “우상의 상징과도 같은 칼” (황순원 1983:149)로 비판적으로 인식된다. 작가는 주인공 인철의 시선을 통해 백정이란 직업에 대한 본돌영감의 맹목적인 신념을 비판한다. 인철은 본돌영감의 아들이자 자신에게는 사촌이 되는 기룡과의 대화를 통해 백정을 인간 이하로 취급해서도 안 되지만 백정의 세계를 우상화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백정이란 하나의 직업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인철의 이러한 비판 의식은 작가가 근대성에 대한 대안으로 추구하는 것이 전근대성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확인케 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근대성의 화신인 본돌영감에게 인철이 나타내는 감정은 혐오이다. 그렇지만 인철이 자신의 근원적 정체성을 부정하려고 하지는 않기에 본돌영감에게서 그가 느끼는 혐오는 극단적인 혐오가 아닌 괴로움이 섞인 혐오이다.

인철은 노인을,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혐오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피붙이라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 섞인 혐오였다(황순원 1983:148~149).

전근대적 인물의 전형인 본돌영감에 비해 본돌영감의 동생 상진영감의 삶은 철저하게 근대적 인물의 특성을 나타낸다. 본돌영감이 백정이란 직업을 신성시하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신분 그대로 고향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상진영감은 고향을 등진 후 철저하게 자신이 백정의 후손이란 것을 숨기며 살아간다. 백정의 후손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상진영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기에 급급할 따름이다. 눈먼 땅을 자기 명의로 만

14) H.B.힐버트(1999:468~469)는 그의 저서 『대한제국멸망사』에서 한국의 종교와 미신에 대해 논하면서 한국인의 잠재적 신앙의 형태로 원시적인 영혼숭배 사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때 원시적 영혼숭배는 정령설, 샤머니즘, 배물교(拜物敎)적 미신 및 자연숭배 사상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힐버트는 논급하고 있다.

든 다음 그 땅을 팔아 집장사를 하며 재산을 불려나가는가 하면 라이벌인 회사를 쓰러뜨리고자 상대 회사의 탈세 행위와 수회(收賄) 여부를 탐지하기도 한다. 결혼마저도 신분 위장을 위한 정략적 도구로 이용했던 상진영감이 그토록 치부에 매달리는 이유는 돈만이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해줄 수 있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욕망의 실현을 위해 양심과 진실마저도 버릴 수 있는 상진영감은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에 세례 받은 근대인의 삶과 그 욕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진영감을 보며 인철은 껌데기뿐인 상진영감의 삶에 실망한다. 인철은 아버지 상진영감이 사업관계로 바쁘면서도 많은 돈을 들여가며 값진 골동품이며 옛날 서화를 사 모으고 그것을 상완(賞玩)하는 마음의 여유와 취미를 높이 생각하고 존경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인철은 상진영감의 그러한 취미가 백정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위장하기 위한 일종의 포즈요 제스처라고 인식한다. 자신의 핏줄과 정체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오직 신분적 허세와 물질적 치부의 욕망에만 사로잡힌 상진영감을 보면서 인철은 분디나뭇골의 큰아버지 본돌영감보다 더 백정 같은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자 인철은 어쩌서 또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나 아버지의 얼굴에서 백정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백정의 얼굴 생김이 꼭 이러해야 한다는 건 없겠지만 적어도 분디나뭇골 큰아버지 얼굴에서 보다는 더 그런 느낌이 왔던 것이다. 인철은 가슴속에서 다시금 와르르 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황순원 1983:177).

인철이 대화 중에 아버지인 상진영감에게서 발견한 백정의 모습은 세습되는 신분과 직업으로서의 백정의 모습이 아니다. 자신이 백정임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 분디나뭇골의 큰아버지보다 철저히 신분을 숨기며 살아가는 상진영감에게서 더욱 백정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은 진실을 감추고자 하는 위선, 비겁함, 간사함 등의 이미지에서 오는 허위와 기만의 모습 때문이다. 이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허상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진영감의 위선적이고도 기만적인 행동을 인철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철의 이러한 의식은 자신의 뿌리를 상실한 채 철저히 가면을 쓰고 눈앞의 실리만을 좇아 살아가는 속물적인 근대인들의 삶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근대적인 삶이나, 전근대적 삶이나, 어느 쪽에서도 삶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인철은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인철의 서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동의 면모는 탈근대적 특성을 나타낸다. 인철은 모든 것을 우월한 가치로 종속시키려는 근대성이 갖는 동일화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한다. 이는 근대적인 삶에 저항하되 그렇다고 전근대적인 삶으로 회귀하지도 않으려는 인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돌영감과 인철의 형 인호의 조우로 인해 감추어졌던 상진영감 집안의 내력이 밝혀지려 하자 인철은 인호와 미래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다. 인철은 인호를 향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던진다.

“앞으루 남은 문젠 우리들이 어떻게 자신의 방향을 정하는가에 달려있지 않은가 해요(황순원 1983:94).”

자신이 처한 실존적 위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책임 있는 주체로서 행동하려는 인철은 탈근대적 사유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상진영감과 같이 타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근대적 일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시도는 두려움과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인철을 오전 세 시에 반복해서 깨게 만드는 꿈의 내용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면서 발생하는 인철의 심리적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집안 내력에 대해 알게 된 인철이 반복적으로 꾸게 되는 세 가지 내용의 꿈은 그의 무의식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첫 번째 꿈은 계단만으로 이루어진 집에서 끝없는 계단을 내려가는 꿈이다. 여기서 ‘내려감’은 인철이 내면적으로 침잠해가는 존재론적 성찰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허명숙 2005:178). 인철은 층계마다 깔려있는 플라타너스 잎에 소발통 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본다. 두 번째 꿈은 커다란 T자를 굽어지고 비치적거리며 걸어가는 꿈이다. 여기서 T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졌던 십자가를 상징하는 듯이 보인다. 첫 번째 꿈의 소발통 자국과 두 번째 꿈의 T자는 인철의 운명을 상징하는 기호로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 꿈인데, 인철은 이 꿈에서 자신의 운명에 맞서는 의지적 태도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오히려 이 어둠을 다행으로 여겼고, 이 어둠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느끼는 것이었다. [...] 그때 별안간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철아, 인철아! 그는 못 들은 체 그냥 안으로 발길을 옮겼다. 인철아,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느냐. [...] 나다, 바루 네가 지금껏 찾아다니던 사람이다. [...] 인철은 동굴 속을 걸어나오기 시작했다. 흰한 동굴 아가리가 저만치 보였다. [...] 자 나왔다, 넌 어디 있느냐. 소리의 임자가 대답했다. 바루 네 옆에 있다. 인철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어디냐, 어디. 바루 네 곁에 있다, 아직두 네 눈은 두려움에 떨구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런 눈을 하지 말구 똑똑히 보아라. 인철은 눈을 크게 뜨려고 하다가 잠이 깬다(황순원 1983:109~110).

인철이 꾸 세 번째 꿈은 어두운 동굴 속을 걷는 꿈이다. 인철은 어둠을 다행으로 여기며 마치 자신이 어두움을 찾으려 했던 것처럼 느낀다. 그때 인철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는다. 두려움에 떠는 인철에게 그 목소리는 지금껏 인철이 찾아다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한다. 인철은 그 소리를 향해 동굴 밖으로 나간다. 그러자 그 목소리는 인철이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말한다.

이 꿈에서 인철을 동굴 밖으로 이끌어내는 목소리는 인철의 또 다른 분신의 목소리에 다름 아니다. 그 목소리는 모든 거짓을 벗고 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인철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다. 인철의 본질적 자아는 진정한 정체성을 찾기를 갈구하는 현실의 인철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눈을 똑바로 뜰 것을 요구한다. 비록 꿈속에서이지만 인철은 자신의 또 다른 분신이 말한 대로 눈을 똑바로 뜨려고 노력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인철의 이러한 의지는 인철이 잠에서 깬 후 서울 미아리 도축장에서 일하는 본돌 영감의 아들인 사촌형 기룡을 만나려고 나서는 적극적 행동으로 이어진다. 기룡과의 만남은 숨겨져 있던 핏줄을 찾아 나섬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긴 여정의 시작인 것이다.

3. 이중 텍스트의 표상으로서의 ‘日月’

『日月』은 이중적 텍스트로서의 구조와 의미를 드러낸다. ‘日月’이라는 은유적 표제가 강하게 암시하듯이 이 작품은 이중적인 서사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이중적인 서사 구조는 ‘해(日)의 서사’와 ‘달(月)의 서사’의 이중 텍스트를 통해 대립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항 대립적 표상 체계에서는 첫째 항이 둘째 항에 대해 초월적 층위를 형성함으로써 가치론적 우월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듯 초월적 의미를 생산하는 초코드화¹⁵⁾는 사회 내부의 가치 체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첫째 항이 항상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게 한다. 초코드화된 첫째 항은 둘째 항을 지배하는 권력의 정당성을 합리화한다.

이 작품은 백정의 이야기인 ‘달의 서사’를 작품의 표면으로 부상시키면서 지배 담론인 ‘해의 서사’에 대한 탈코드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배 서사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탈코드화의 시도는 탈근대적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근대적 전략은 주류 담론의 이데올로기에 억눌려있던 이야기에 서사적 생명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배 담론의 서사를 객관화시키면서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¹⁶⁾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인 인철을 통해 탈근대적 서사의 문맥이 형성되고 있다. 인철은 자신이 백정의 후손임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드러낸다. 그는 ‘우등한 일반인/열등한 천민’이라는 이분법적 차별과 편견에서 그 스스로 벗어나고자 한다. 이는 철저히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살아가는 상진영감이나 인호와 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인철은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과감히 드러냄으로써 백정을 열등한 가치로 서열화하는 사회적 가치 체계에 맞선다. 그는 지교수에게 분디나뭇골의 백정 본돌영감이 자신의 큰아버지라고 담담히 고백한다. 그러면서도 인철은 자신의 고백이 결코 충동적이지 않다고 느낀다. 이는 인철의 고백이 내면적 의지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교수에게 자기와 분디나뭇골 본돌영감과 의 관계를 말해버리고 난 인철은 그것이 단순히 어떤 돌발적인 충동에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황순원 1983:153).

인철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형 인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다. 인호는 본적지인 광주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해보려는 포석으로 광주군수로 내려가 있던 중에 군수실에 민원을 말하기 위해 찾아온 큰아버지 본돌영감을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는 자신이 백정 출신임을 스스로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그는 백정의 이름을 달고 사느니보다는 백정 집안임을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의 파멸과 집안의 파멸로 인한 공멸을 막기 위해 가족과 인연을 끊고 살겠다는 편지를 상진영감에게 보낸다. 부모형제와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인호는 자신이 쓴 편지조차도 누가 볼까 두려워한 나머지 태워버리라고 부탁한다.

그 백정의 이름을 달고 사느니보다는 부친주의 말씀대로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숨길 수 있는 데까지는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나이다. [...] 결국 소자는 소자 혼자만의 파멸 뿐 아니옵고 소자의 식구들에게 미칠 파멸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옵니

15) 들뢰즈와 가타리는 전체 군주하에서는 전체 군주나 신이라는 초월적 기호에 의해 초코드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즉, 초코드화란 초월적 가치를 지닌 신이나 전체 군주, 혹은 어떤 표상 체계에 의해서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식을 의미한다(들뢰즈·가타리 1994:291~300).

16)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 한국사회는 근대화가 지배층과 부르주아층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주류 계층은 근대화를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계급 발전과 동일시하는 경향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다(서중석 1995:115).

다. [...] 앞으로는 찾아뵈는 것은 물론 서신도 드리지 않겠사오니 부친주께서 널리 하량하시옵기 바라나이다. [...] 이 글을 보시는 즉시 태위없애버리시옵소서(황순원 1983:181~182).

인호를 통해 발견되고 있는 이중 텍스트로서의 ‘달의 서사’는 철저히 지배 이데올로기인 ‘해의 서사’에 종속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인호의 이름도 원래 ‘일 기(起)’ 자 돌림이었는데 상진영감이 ‘어질 인(仁)’ 자로 바꾸어 놓았다. 원래 백정은 ‘어질 인(仁)’ 자나 ‘옳을 의(義)’ 자는 돌림자로 못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질 인(仁)’ 자를 돌림자로 씌으로써 백정 집안의 내력을 숨기려는 의도에서였다. 따라서 ‘일 기(起)’ 자 돌림의 이름이 인호의 진짜 모습이라면, ‘어질 인(仁)’ 자 돌림의 이름은 ‘해의 서사’의 모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닮고자 하는 것이 대서사인 ‘해의 서사’에 철저히 종속되어 있는 인호가 갖는 양가적 감정이다.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까 전전긍긍하는 인호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인 주류 사회의 지배 담론을 드러나게 한다. 현직 군수이며 국회의원까지 꿈꾸고 있는 인호는 주변부의 소서사인 백정의 서사에 종지부를 찍고 중심부의 권력에서 대서사를 써나가고자 하는 야망을 갖는다. 그러나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인호는 설사 자신이 원하는 야망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인호와와는 조금 다른 편차를 나타내보이지만 인철의 사촌형 기룡 역시 대서사인 ‘해의 서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아버지 본돌영감의 대를 이어 서울에서도 죽을 하면서 살아간다. 기룡이 백정의 가업을 물려받은 것은 6·25 때 학살당한 형과 조카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아버지 본돌영감이 대신 덮어쓴 후에 가중되는 죄의식을 덜기 위해서였다. 세상이 백정을 천대하고 멸시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백정인 것을 숨기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기룡은 백정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기룡은 자신을 찾아온 인철에게 자신은 사촌이 없다고 부인한다. 기룡이 이렇게 철저히 핏줄과 절연한 채 살아가는 것은 백정에 대한 세상의 시선에서 그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의 시선에 얽매어 사촌 간에도 바깥에서 아는 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존재의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모습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기룡에게 있어서 자기소외를 극복하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방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외로움을 단지 참고 견디는 것일 뿐이다.

“어쨌든 인간이 소외당한 자기자신을 도루 찾으려면 각자에 주어진 외로움을 우선 참고 견디거나 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거야(황순원 1983:305).”

기룡은 새로 옮긴 도수장 뒤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그 집 주인이 죽기 전에 기르던 고양이로 기르며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는 고양이의 성격을 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않고 살아가는 고양이의 무게 정도를 자신의 삶의 무게로 느끼며 살아가는 기룡은 ‘해의 서사’에 가려진 ‘달의 서사’로서의 자신의 삶을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주어진 외로움을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이러한 기룡의 의식은 단지 피붙이의 관계에서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본명이 화자라고 불리는 최에스더와의 관계를 끊으려 한다. 화자는 거리의 여자들의 갱생을 위해 만든 교화소인 마리아의 집에 들어갔다가 모범생이 되어 지금은 교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여인이다. 샅바느질을 하면서 기룡과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던 화자에게 기룡은 자신들의

관계는 끝난 것이라고 말한다. 기룡 때문에 새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던 화자는 기룡과 자기 자신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며 뛰쳐나간다. 자신을 사랑하는 화자를 저버리고 길거리의 여인에게 하룻밤 자신의 몸을 위탁하는 기룡에게서 인철은 “꺾을 수 없는 외로운 의지” (황순원 1983:225)를 느낀다.

인철은 본돌영감이 죽은 후 남긴 유품인 소 잡는 칼을 기룡에게서 건네받는다. 본돌영감이 신성시하던 소 잡는 칼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인철에게 주어진 것이다. 본돌영감이 쓰던 소 잡는 칼은 인철 집안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물건이다. 또한 이 칼은 이중 텍스트의 표상으로서의 ‘日月’을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표지이기도 하다. ‘달의 서사’에 속하는 백정 집안의 상징인 소 잡는 칼은 백정의 세계뿐 아니라 백정의 세계를 억누르고 그 구성원들을 옥죄고 있는 ‘해의 서사’로서의 주류 사회의 지배 담론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철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정체성의 상징인 본돌영감의 칼을 받고 나서 고민에 빠진다. 그는 형 인호처럼 과거의 진실을 피해서 살아갈까 생각을 해보기도 한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현실의 생활에 순응하며 살아가면 무난하고 마음 편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방황하던 인철은 본돌영감의 칼이 자신에게 주어지자 다시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내면적 갈등 속에 빠져든다.

이제까지의 생활에 그냥 순응해서 살면 무난하고 마음 편한 것을 무엇하러 이려고 다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형 인호처럼 피해버려야 하는가 어찌는가(황순원 1983:257).

본돌영감의 칼은 백정 집안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이기에 그 칼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본돌영감의 칼로 인해 고민에 빠졌던 인철은 그 칼을 대장장이에게 주면서 꺾쇠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다. 인철이 선택한 방법은 칼을 꺾쇠로 만드는 다소 의아한 것이었다. 백정의 칼은 꺾쇠로 만드는 쇠가 아니기에 대장장이는 거절을 하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철은 대장장이에 200환을 주며 꺾쇠로 만들어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인철은 그 꺾쇠를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다. 칼을 꺾쇠로 만드는 인철의 행동은 조상이 백정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긍정도 하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철은 백정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치중립적인 상태로 인식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황과 고민으로 인해 인철은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인철의 이러한 가치중립적인 태도는 이항 대립적 가치들의 경계선을 허물며 존재론적 공존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 이항 대립적 가치의 경계선 허물기

『日月』이 나타내는 중요한 서사 전략은 이항 대립적 가치를 무화시키려는 데 있다. 이는 황순원의 작품에서 반복되어 검출되는 작가의 보편적 주제의식이기도 하다. 이분법에 근거한 이항 대립적 가치 체계는 제3의 대안에 대한 모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특징을 갖는다. 근대화의 과정 속에 이항 대립적 가치 체계는 근대화를 가속화시키는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⁷⁾ ‘근대화/전근대화’라는 이항 대립적 구분은 근대화로의 과정이 역사

17) 주체중심적 근대사상은 타자를 억압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인간중심주의는 자연과 환경을 훼손

적 필연성과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도식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인철은 이항 대립의 도식에 의해서 타자를 억압하는 근대성의 주체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탈근대적 주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철은 주체와 타자 사이의 ‘나와 너’의 이항 대립의 이분법적 경계선을 허물고 ‘우리의 공존’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표출한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이러한 이항 대립적 가치에 철저히 지배당하며 살아간다. 백정의 후손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상진영감이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형제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인호나, 남편 상진영감이 기생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인주를 기생의 피를 이어 받은 죄의 씨로 여기는 홍씨나, 백정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랑과 행복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숙명처럼 안은 채 살아가는 기룡이나, 인철이 백정 집안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딸 나미에게 인철과의 교제를 중단하라고 명령하는 조 은행장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인주를 독차지하기 위해 인주 집안이 백정의 집안임을 암시하는 우편물을 발송하는 신명수 등은 이러한 이항 대립적 가치체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이항 대립적 가치의 대립 속에서 느껴지는 패배감과 피해의식은 현실도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본돌영감과 기룡, 그리고 인철의 모친 홍씨가 그러한 성향을 나타내는 인물들이다. 본돌영감과 기룡은 외면적으로는 백정의 가업을 이어받아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 이들은 현실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소외시키며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본돌영감이 소 잡는 직업을 신성시하고 소 잡는 도구인 칼을 숭배하는 것도 천민으로서의 신분과 살생업인 도축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시종일관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는 지교수가 전경훈과 나누는 대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인식은 본돌영감의 집착증과도 같은 배물교적 숭배에 대한 해석의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그건 종교심에서 우러나왔다느니보담은 천민으로서의 생활의식이 그렇게 만들었다구 봐야 할거야. 옛날엔 그들에 대한 사회적 제약이 오죽했나.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기네 처지를 중하구 같은 수도자루 자처해서 자기네 생활을 정당화시키구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구 했을 거야(황순원 1983:101).”

본돌영감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보이지 않게 된 눈 위에 소 잡는 칼을 올려놓고 보인다고 했다는 말을 기룡에게 전해 들으면서 인철은 자신의 어머니 홍씨를 떠올린다. 비록 기독교인인 홍씨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본돌영감의 샤머니즘적 신앙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현실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켜가는 모습은 같다고 느끼는 것이다. 샤머니즘이든, 기독교든,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현실에서 찾으려하지 않고 초월적 세계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을 소외시켜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그만 눈이…… 그러구 나서부턴 돌아가실 때까지 밤낮 칼을 눈 위에 올려놓고 계시면서 때때루 보인다 하시드군요. 허가 잘 돌지두 않는 말소리루.” [...] 인철은 자기 어머니도 그러한 예의 하나가 아닌가 싶었다. 그 부실한 몸으로 병원에서 곧장 기도원으로 다시 가겠다는 아집을 종내 어쩔 수가 없어 이부자리며 갈아입을 옷가지며를 갖추어 싣고 기도원까지 모셔

시켰으며 남성주의적 주체관은 여성을 억압해 페미니즘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리고 차민족중심주의, 제국주의는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라는 문제를 낳았다(나병철 2004: 20~21).

다놓고 밥 해 파는 아주머니에게 돈을 주어 방의 군불과 음식 같은 것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그때 기도원 안에 들어서자 그 갓 퇴원한 여위고 핼쓱한 얼굴에 띠었던 어머니의 만족해하던 모습을 인철은 기억하고 있었다(황순원 1983:221).

홍씨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실 도피적 태도와 자기소외의 모습은 타자를 배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항 대립적 가치 체계 속에서 피해의식이 우월의식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씨는 남편이 인주의 생모와 불륜의 정을 쌓을 때 자신이 인문을 임신했다 해서 인문을 죄의 씨로 여긴다. 또한 남편을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여 그 이후로 남편과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올린다. 홍씨는 인문을 낳은 뒤로는 한 번도 가까이하지 않은 자기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하나님의 품안을 떠나있는 자식들도 부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구원받은 의인/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가족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홍씨는 부부나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완전히 떠난 상태의 부활이 있을 것을 믿는 동시에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생각까지 한다.

인문을 낳은 뒤로는 한번도 가까이하지 않은 자기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하나님의 품안을 떠나있는 자식들도 부활을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고 있는 홍씨는 정말 부부나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완전히 떠난 상태로 부활이 있을 것을 믿고 싶고 또한 그러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황순원 1983:170).

기도원에서 움막을 짓고 기도하며 살겠다고 말하는 홍씨를 보며 인철은 홍씨의 움막이 홍씨와 온가족 사이에 장벽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씨의 움막은 홍씨와 그녀의 가족들을 이분법적 가치에 의해 나누는 경계선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인철은 홍씨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본 소나무 등걸을 인철이 자르려 하자 오히려 그 나무등걸을 움막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순간 인철은 붉은 보자기에 싼 칼을 들고 도수장 안을 구석구석 휘두르며 돌고 있는 큰아버지 본돌영감을 떠올린다. 인철은 어머니 홍씨를 붙들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 순간 인철은 잘못됐건 어쨌건 간에 자신은 어떤 일에 그토록 몰아해 들어가 본 적이 없지 않느냐고 자문하며 자조의 웃음을 내비친다.

나무등걸이 기도에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 없었으나 인철은 인철대로 영똥한 영상을 하나 눈앞에 펼치고 있었다. 큰아버지가 붉은 보자기에 싼 칼을 들고 도수장 안을 구석구석 휘두르며 도는 영상이었다. 인철은 어머니가 가엾어졌다. 그는 어머니를 붙들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속에서만이었다. 그는 별안간 소리내어 웃었다. 잘못됐건 어쨌건 어떤 일에 그토록 몰아해 들어가본 일이 너는 없지 않느냐는 자조의 웃음이었다(황순원 1983:281).

인철은 비록 어머니 홍씨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으나 그러한 이유로 홍씨를 비하하며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자식으로서의 애정이 자기에게는 왜 우러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심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인철은 현실의 문제를 타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먼저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고 있다. 홍씨의 움막이 가족과의 장벽이고, 나무등걸을 의지하는 모친 홍씨의 태도를 본돌노인의 샤머니즘적 신앙으로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무엇에 그토록 몰아해 들어간 적이 없음을 생각하며 인철

은 스스로를 자조할 뿐인 것이다.

이러한 인철의 인식 태도는 그가 이분법적 가치 체계의 의미항을 재생산해내지 않고 그러한 이분법의 경계선을 허물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대다수의 인물들은 철저하게 이분법적 가치 체계 속에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실현하지 못한 채 이항 대립의 경계선 아래에 존재하면서 소외의식과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의식과 피해의식은 자신의 영역에서 타자를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다른 사람에게 동일화의 권력을 행사하는 모순을 낳게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타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위치한 영역의 바깥 쪽에 타자를 위치시켜야 한다. 타자를 자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 바깥에 위치시킨다는 것은 결국 배제의 원리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힘의 행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항 대립적 가치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허물어가는 탈근대적 주체로서의 인철의 모습이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제3부에 해당하는 이 작품의 마지막 장의 소재명은 ‘전야제(前夜祭)’이다. 중요한 행사의 전날 밤에 벌이는 축제를 의미하는 ‘전야제’는 이 작품에서 어떤 중요한 국면으로 이행하기 직전의 단계와 상태를 의미한다. 인철에게 있어서 중요한 국면의 전환이란 재력가인 조흥은행 조 은행장 딸인 나미와의 약혼 발표를 의미한다. 나미는 자신의 집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때 인철과의 약혼 발표를 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관계를 반대하는 부친을 “함락시켜놓겠다고”(황순원 1983:318) 자신 있게 말하는 나미를 보면서 인철은 회사 운영난에 빠져있는 아버지 상진영감이 재력가인 조흥은행장 딸과의 결혼이라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인철은 “그러나, 그러나”를 수없이 되뇌는다.

인철은 잠시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응낙이고 뭐고 없을 게다. 언젠가는 타산에 의한 다혜와의 결혼을 노골적으로 권하기까지 하지 않았는가. 지금 아버지는 회사 운영난에 빠져있는 게 옆에서 보기에 역력하다. 용자도 안 되는 모양이다. 조흥은행장 딸과의 결혼이라면 그야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인철은 감미롭고 화려한 음악 속에서 그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그러나를 수없이 되뇌고 있었다(황순원 1983:319).

인철이 “그러나, 그러나”를 수없이 되뇌는 것은 지교수의 딸 다혜와 조 은행장의 딸 나미를 저울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 두 여인 중 누구와 결혼하더라도 인철은 자신의 신분적 콤플렉스를 감추고 살 수 있다. 이는 누구보다도 인철의 부친 상진영감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철은 소외당한 자기 자신을 찾는 일이 더 급선무임을 인식한다. 그는 ‘나는 나/너는 너’의 인간관계의 공식을 허물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이분법적 이항 대립은 결국 끊임없이 상대방을 타자화 시키고 결국은 자기 자신마저도 소외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이대로 나는 관객의 입장에서 다혜와 나미를 대해야 하는가. 나는 나, 너는 너라는 인간 관계란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인간이 소외당한 자기자신을 도루 찾으려면 우선 각자에 주어진 외로움을 참구 견뎌나가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거야. 기룡의 말이었다. …… 그건 그렇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란 인간과 인간이 격리돼있는 상태에서만 오는 게 아니지 않은가. 서로 부딪칠 수 있는 데까지 부딪쳐본 다음에 처리돼야만 할 문제가 아닌가. 기룡을 만나야 한다. 만나 얘기해야 한다(황순원 1983:343).

이 작품의 말미에서 인철이 보여주는 실존적 선택은 소외당한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즉 정체성의 회복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나는 나/너는 너’의 이항 대립적 구분의 경계선을 허물려고 한다. ‘나/너’의 이항 대립에서 항상 ‘나’는 타자인 ‘너’를 지배하기 위해 ‘나의 이데올로기’를 행사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홍씨가 기도원에서 칩거하고 있는 움막 역시 이러한 ‘나/너’의 이항 대립을 보여주는 예이다. 홍씨가 남편뿐만 아니라 자녀인 인철, 인주, 인문 등을 죄의 씨앗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 등으로 여기는 것도 홍씨가 ‘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타자로서의 너’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철이 자신의 삶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기룡을 찾아 나서는 것은 그 자신이 ‘나의 이데올로기’를 버리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보면 다혜나 나미는 자신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타자임에 분명하다. 더욱이 두 여인은 백정의 후손이라는 자신의 신분적 결함을 가려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존재들이다. 그러나 인철은 ‘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타자를 희생시키려 하기보다 ‘나와 너의 공존’, 즉 ‘우리의 공존’을 향해 나아간다. 인철이 파티의 고깔모자를 벗어던지고 다시 사촌형 기룡을 찾아 나서는 것은 ‘우리의 공존’을 통해 이항 대립적 가치의 경계선을 허물려고 하는 그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행동인 것이다.

5. 맺음말

본고는 『日月』의 서사를 이중적 텍스트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은유적 표제인 ‘日月’에서 암시되듯이 이 작품은 한국사회의 지배 담론으로서의 대서사와 그 대서사에 종속되고 억압되어 있는 소서사를 함께 문제 삼고 있다. 이 작품은 백정의 이야기라는 주변부의 소서사를 소설의 중심 서사로 이끌어냄으로써 한국사회의 대서사 속에 감추어진 중심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는 이 작품이 보여주고 있는 탈근대적 서사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정 집안의 이야기를 통해 지배 담론에 억압되어 있던 미세서사로서의 소서사가 드러나면서 근대화 과정에서 정당화된 사회 중심부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가치가 인식론적으로 전복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본고는 이 작품의 은유적 표제를 분석하여 중심부의 서사를 ‘해(日)의 서사’로, 주변부의 서사를 ‘달(月)의 서사’로 지칭하였다. 결국 이 작품은 ‘달의 서사’인 백정의 이야기를 통해 ‘해의 서사’인 지배 담론의 이데올로기에 문학적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작품에서 주변부의 소서사인 백정의 이야기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는 백정의 세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해가는 지교수의 서사이고, 두 번째는 인철을 중심으로 한 백정 일가의 서사이다. 백정 집안의 구성원들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의식과 행동을 통해 이 작품의 소서사는 대략 다음 세 가지 층위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본돌영감이 보여주고 있는 전근대적 서사의 층위이고, 두 번째는 상진영감과 인호를 통해서 나타나는 근대적 서사의 층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공 인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탈근대적 서사의 층위이다. 인철의 서사는 이 작품에서 궁극적 주제를 구현해나가면서 탈근대적 담론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중심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이항 대립적 표상 체계의 전형인 ‘日月’은 이 작품의 내적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항 대립의 표상에서는 항상 첫째 항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서양/동양’, ‘남/녀’, ‘정상인/비정상인’ 등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모든 이분법적 구분은 항상 첫째 항의 우월적 가치를 드

러내는 초코드화의 도식이다. 따라서 ‘日月’ 역시 ‘해=낮=빛’의 의미가 ‘달=밤=어둠’의 의미에 우월한 부등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고는 주인공 인철을 중심으로 한 작중 인물의 의식과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초코드화된 이항 대립적 가치의 도식으로부터 스스로를 탈코드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고는 작가가 주변부의 이야기, 미세서사인 백정의 세계에 천착한 중요한 창작 동기 중의 하나가 당시 작가가 남한사회에서 월남 실향민으로서 지니고 있던 신분적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 담론으로 그 힘을 발휘하던 남한사회에서 한때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던 전력을 지닌 채 월남 실향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작가가 남다른 관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서 행사된 강력한 지배 이데올로기의 힘을 작가로 하여금 소서사로서의 주변부의 이야기인 백정의 세계에 천착하게 한 환경적 동인으로 보고 있다. 결국 작가는 백정 이야기의 소서사를 통해서 대서사인 지배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억압에 저항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텍스트의 이중성이 갖는 서사적 전략이 어떻게 탈근대의 서사담론으로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탈근대의 서사담론은 이항 대립적 가치의 경계를 허물고 타자와의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핵심적 의미가 놓여져 있다. 주인공 인철을 통해서 확인되는 ‘나는 나/너는 너’의 이항 대립적 구분의 경계선 허물기의 시도는 자기소외를 극복하고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문학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인공 인철이 보여주고 있듯이 ‘나의 이데올로기’를 행사하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공존’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가능한 대안인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황순원(1983), 『日月』, 문학과지성사.

2. 2차 자료

2.1. 단행본

김기진(2002),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김정원 외(1984), 「군정(軍政)과 제3공화국」, 『1960年代』, 거름.

나병철(2001), 『근대서사와 탈식민주의』, 문예출판사.

나병철(2004),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박태순·김동춘(1991),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서중석(1995), 「한국에서의 민족문제와 국가」,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한국사연구회 편, 지식산업사.

조남현(1993), 『韓國現代小說의 解剖』, 문예출판사.

조현일(2004),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리얼리즘』, 월인.

전경갑(1993), 『현대와 탈현대의 사회사상』, 한길사.

한국사연구회 편(1995), 『근대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지식산업사.

허명숙(2005), 『황순원 소설의 이미지 읽기』, 월인.

Deleuse, Gilles·Gattari, Félix(1994), 『앙띠 오이디푸스』, 최명관 역, 민음사.

Hulbert, Homer B.(1999), 『대한제국멸망사』, 신복룡 역주, 집문당.

Lytard, Jean-François,(1992) 『포스트모던적 조건』, 이현복 역, 서광사.

_____(1993) 『지식인의 종언』, 이현복 편역, 문예출판사.

Pierson, Christopher(1997), 『근대국가의 이해』, 박형신·이택면 공역, 일신사.

2.2. 논문

김정하(1986), 「황순원 『日月』 연구 : 前像化된 象徴構造의 原型批評的 分析과 解釋」, 서강대학교 원 석사학위논문.

김주현(1997), 「『카인의 後裔』의 개작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제10호.

박용규(2005), 「황순원 소설의 개작과정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방민호(1994.12), 「현실을 포회(包懷)하는 상징의 세계 - 황순원 장편소설 『별과 같이 살다』 론」, 『冠嶽語文研究』 제19집.

방민화(1988), 「黃順元 『日月』 연구 : 入社式을 中心으로」,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상일(1981), 「순수와 초월」, 『人間接木/나무들 비탈에 서다』(黃順元全集 7). 문학과지성사.

성민엽(1983), 「존재론적 고독의 성찰」, 『日月』(黃順元全集 8), 문학과지성사.

- 이은영(2002.4), 「주체의 인식공간과 공간성 연구 : 황순원의 『日月』의 비유적 공간 읽기」, 『한국소설연구』 제4집.
- 장소진(2003.6), 「역사적, 사회적 억압과 개인적 실존의 모색 : 황순원의 『일월』론」, 『한민족문화연구』 제12집.
- 장양수(1999.6), 「黃順元 장편 <日月>의 實存主義文學的 성격」, 『韓國文學論叢』 제24집.
- 허명숙(1988), 「황순원 장편소설 연구 : 『日月』, 『움직이는 城』, 『神들의 주사위』의 人物構造를 中心으로」, 숭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K C I

ABSTRACT

The Narrative of Post-modernism and the Dualism of Text:

An examination of 『IlWol』 by Hwang, Soon-Won

Roh, Seung-Wook

This paper analyzed Hwang, Soon-Won's novel, 『IlWo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ual text as grand narrative and micro narrative. Like the metaphoric title of 'IlWol', this novel considers grand narrative as dominant ideology in Korean society and micro narrative as little narrative which is dependent and repressed in grand narrative. It proves dominant ideology that was hidden in grand narrative of Korean society, leading the main narrative of this novel from the butcher's story. This is the aspect of Post-modern narrative on this book. Through the story of butcher's lineage, little narrative as the micro narrative that is repressed by dominant ideology overthrows the dominant ideology of justified society's center part epistemologically. Analyzing the metaphoric title, this paper designated the narrative of center part as 'the narrative of Sun', the narrative of marginal part as 'the narrative of Moon'. After all, this novel criticizes the ideology of dominant discourse which is 'the narrative of Sun' through the story of butcher's lineage which is 'the narrative of Moon'.

As the archetype of binary oppositional symbol system, 'IlWol' shows the inner structure of this book. In binary oppositional symbol, the first term always holds a prominent position. Most dichotomous division, like 'The west/the east', 'male/female', 'normal/abnormal', etc. is the scheme of decoding showing the prominent value of the first term. Therefore 'IlWol' displays prominent inequality, 'Sun=day=light' is superior to 'Moon=night=darkness'. This paper analyzes how the main character, In-Chul's consciousness and action decode themselves from binary oppositional value. The Post-modern narrative discourse from this novel breaks down binary oppositional value and searches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with others. The attempt of breaking down the division of binary opposition is the alternative plan overcoming self-alienation and searching genuine identity.

This paper maintains a view that there is some connection between the author's positional identity as a displaced person coming from North Korea in South-Korean society and the motive of creation searching the little narrative, marginal butcher's world. This book was published serially when the powerful dominant ideology was exercised by the military regime in Korea. This paper considers that this environmental motive made the author search butcher's world as little narrative. Ultimately, the author resisted the ideological repression of dominant discourse through butcher's narrative.

주제어:

대서사, 소서사, 미세 서사, 이중 텍스트, 이항 대립, 지배 이데올로기, 초코드화, 탈코드화, 탈근대적 서사

grand narrative, little narrative, micro narrative, dual text, binary opposition, dominant ideology, sur-coding, decoding, post-modern narrative

KCS I